



##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한영인쇄사’ “생산성보다 고품질 인쇄물이 먼저”

인쇄가 있는 곳에 문화가 있고, 문화가 있는 곳에 인쇄가 있다. 곧 어떤 문화도 인쇄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이에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원사를 찾아가 인쇄노하우에 대해 들어본다. 이번호의 주인공은 을지로4가에 위치한 한영인쇄사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1987년 설립된 한영인쇄사(대표 이영호)는 미쓰비시 대국전 5색기, 하이텔베르그 2색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홍보 카탈로그, 캘린더, 정기간행물, 패키지 등 다양한 인쇄물을 제작·납품하고 있다. 도서출판 고려의학, 창원대학교, 동국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대학교 홍보 간행물과 종교서적 등을 비롯해 디자인 기획사 하청 작업도 하고 있다. 패키지 부분은 삼성전자 및 LG전자 음향사업부의 패키지 제작물을 납품하기도 했으며, 지금은 자동차 내비게이션 제작 수출업체인 아시텍전자와 피엠아이 전자 등에 케이스, 라벨 및 매뉴얼 등을 납품하고 있다. 현재 이들 전자업체는 일본을 비롯해 유럽 5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 양보다는 질 “품질이 우선”

이영호 대표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학교선배를 통해 당시 제약 부문 케이스 및 출판인쇄로 유명했던 선문사에서 인쇄기술을 배웠다. 인쇄 견습부터 시작한 이영호 대표는 수동기계, 자동기계, 1색기, 2색기 등 다양한 인쇄기를 접하면서 인쇄에 대

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이영호 대표는 “당시만 해도 인쇄 경기가 좋았다. 기술을 배우면 사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인쇄사에 취직했다. 나 역시 학교 선배의 소개로 인쇄와 인연을 맺게 됐다”라고 회상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당시 총무로만 해도 직원복지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다. 4대보험을 보장하지 않는 인쇄사가 많아 이직률이 높았다. 그래서 공장장이 된 후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많은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이영호 대표는 1987년에 태강인쇄사를 설립하면서 인쇄사를 직접 경



한영인쇄사에서 작업한 인쇄물들

영하게 됐다. 1988년에는 종이로 만든 중국 강시인형과 모자가 인기를 얻으면서 밤낮없이 인쇄기를 가동해야 했다. 이영호 대표는 “당시 직원도 없이 부인과 함께 밤낮 구분없이 인쇄사에서 작업했다. 어린 아이들은 시골 부모님댁에 맡겨 놓았고, 이후 아이들이 어느정도 자라면서부터는 아이들끼리 생활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많이 미안하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할 시기에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것이 무척이나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이영호 대표는 자동 1색 인쇄기를 중고로 도입했지만 중고기계다 보니 인쇄품질이 좋지 않아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러다 1990년 제일특수 배종일 사장의 배려로 삼성전자 매뉴얼을 작업하면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당시 삼성전자 매뉴얼은 국내용은 1천부 미만이지만 미국 수출용은 3천부, 중국 수출용은 3만부를 한번에 인쇄했다. 인쇄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후 하이델베르크 국전 2색기를 도입해 인쇄 품질과 속도를 높였다. 2003년에는 5색 인쇄기를 도입했다.

### “녹록치 않은 현실 아들과 함께 극복”

한영인쇄사에는 이영호 대표를 비롯해 9명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중에는 부인인 허순구씨와 아들인 한진군이 있다. 이영호 대표는 “아내는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 왔지만 아들은 2년전부터 회사에 출근하고 있다. 화가를 지망하던 아들은 중부대 인쇄과를 졸업했는데, 대학 재학시 모스크바 국립 화상 출판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 인쇄를 공부하기도 했다. 얼마전에는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차석졸업하는 등 2세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세대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인쇄 기술만을 몸으로 배웠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진 만큼 첨단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인쇄사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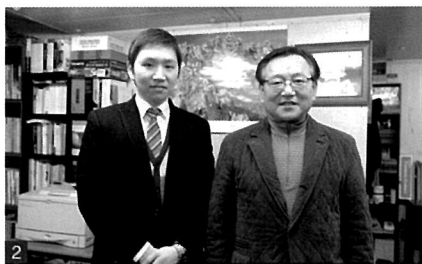
이영호 대표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 “우리처럼 소규모 인쇄사는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인쇄품질 향상을 위해 최신 인쇄기 도입도 고려하고 있지만, 시기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뒤 업그레이드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며 “사장이든 직원이든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한영문화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한영인쇄사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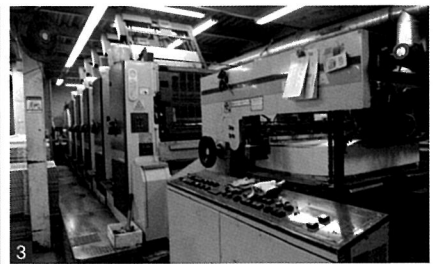
- 1987년 인쇄사 설립
- 1993년 하이델베르크 1색기 도입
- 1996년 하이델베르크 2색기 도입
- 2001년 디지털 출판장비 도입
- 2003년 미쓰비시 대국전 5색기 도입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 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22길 15-5(을지로 4가)
- 전화 | 02-2277-9585 팩스 | 02-2271-3488



1. 한영인쇄사 이영호 대표



2. 이영호 대표와 아들 이한진군



3. 미쓰비시 대국전 5색기

### 미니인터뷰

### 한영인쇄사 이영호 대표 “현재 아닌 다음 단계 생각하며 행동”

#### 인쇄사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2000년 후반 합판업체의 가격덤핑으로 인해 인쇄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는 올라가지만 인쇄단가는 낮아지니 인쇄사 경영이 너무 어렵다. 지금 인쇄업계는 속도 및 품질경쟁이 이뤄지고 있는데, 빛을 내서 투자하기가 어렵다. 좀 더 지켜보면서 투자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 인쇄와 인연을 맺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충남 공주의 촌놈이 작지만 인쇄사 사장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인쇄사 사장을 하게 된 것을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습관처럼 됐기 때문이다. 견습공 시절부터 맡겨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할지 한 단계 이후를 생각했다. 그래서 동료들이나 선배보다 먼저 기장도 되고, 공장장도 맡게 됐던 것 같다.

#### 평소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납품받는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쇄사 입장이 아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간단하다. 작업한 인쇄물이 절대 부족해서는 안되고, 재인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높은 생산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제작물의 목적에 부합하는 보다 나은 품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